

형태에 관한 제주방언 표기

강 정 희*

차례

1. 문제 제기
2. 제주방언 표기법-형태분야-의 검토
3. 결론

1. 문제 제기

이 글은 1995년 제주 방언 연구회가 펴낸 「제주어 사전」의 표기법을 재검점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표기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사전은 전문 분야의 사전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 편찬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이후 출판되는 「국어사전」의 표기법은 1989년도부터 시행된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언어 분야에서 각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여 사전으로 편찬할 경우 이 원칙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각 지역에 따라서 표준 발음, 형태와는 다른 어형들이 존재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고 있어서 이들 방언형들이 표제어로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언사전 편찬자들의 고민이 출발한다고 하겠다. 즉 해당 방언형을 표제어로 할 경우 음소주의를 따를 것인가, 형태주의를 따를 것인가, 형태음소주의를 따를 것인가라는 표기법의 기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출간된 지역 방언 사전들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기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¹⁾

그렇다면 「제주어사전」의 표기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주어사전」의 표기법은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항)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주어사전」은 <한글 맞춤법>의 기준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으로 음소주의와 형태음소주의를 따른다는 자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 제26항 다음에 [붙임]은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글맞춤법”에 따른다.”는 <한글 맞춤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제주어 표기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어’가 한국어의 지역 변이형의 하나임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바로 이 제주어 표기법의 핵심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행 제주어 사전의 형태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제주방언 표기법-형태 분야-의 검토

제주방언 형태 분야의 표기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1에서 언급한 제주어 표기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붙임]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글맞춤법”에 따른다.”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 내용은 제주어 표

1) 김영배(1997)는 ‘음소주의’에 중점을 두는 편이고 이기갑(1997), 이상규(2000)는 ‘음소주의’와 ‘형태음소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이들의 사전 <일러두기> 참고.

기법에 제시된 전체 제1항에서 제26항까지의 규정에 적용되는 내용은 제주방언의 특수한 용례들에 대한 표기법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깊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제주방언을 발음 나는 대로 적되, 형태소의 원형을 최대한으로 밝혀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에 대입한 인상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13항, 14항에 제시된 제주방언의 조사 목록이나 용언의 어미활용 패턴이 표준어의 그것들과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로 제시된 어형 변화패턴이 표준어에 평행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태 분야의 표기법 적용 대상(범주)도 <한글 맞춤법>의 형태 분야와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다.(제5절은 규정하지 않음)

만일 제주어 표기법이 ‘제주방언을 발음 나는 대로 적되, 형태소의 원형을 최대한으로 밝혀 적는다.’를 지향한다면 앞의 조항들의 내용은 제주방언의 특수한 곡용형과 활용형의 표기를 위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 일반적인 방언형들에 대해서는 [붙임]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글맞춤법”에 따른다.”라는 부가적인 조항으로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어 표기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다른 지역 방언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기법의 기준인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표기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제주어의 형태 분야 표기법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 제1절 체언과 조사
- 제2절 어간과 어미
-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 (제5절 준말): 한글 맞춤법

이제 앞의 각 절에 따라 표기법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체언과 조사(제13항/ 제14항(한))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제주어의 체언과 조사에 대한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의 해당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체언의 곡용형의 변이형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이는 형태주의 입장으로서 현실 발음으로 실현되는 변이형을 표제어로 채택하지 않고 기본 형태소를 밝혀 쓰도록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여러 변이형들 중에서 어느 것을 기본형으로 하느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

- 1) 독더레- 독 + 더레(치격)
- 2) 집안의,(형태) 밧기 (소리) '*-기'처리 문제
- 3) 즈꿏디

예를 들면 체언 뒤에 결합하는 조사들의 표기법 중에서 치격의 '더레, 드레, 데레, 르레, 러레'와 '의, 이, 에, 기' 등의 변이형들 중에서 앞의 그룹은 '더레'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뒤의 '의, 이, 에, 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의 '밧기'는 '*뿃+의'로 형태소 분석하여 체언 '*뿃'과 치격조사 '의'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의 경우는 형태주의가 아니라 형태음소주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동일 조항에서 표기법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13항은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단, 조사의 경우 형태를 밝혀 적되 제주어의 발음을 반영하여 적도록 한다.'로 바뀌보면 어떠한가?

제2절 어간과 어미(제14항/제15항(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형태주의

1) 녹다 - 녹안, 녹암저, 녹앗수다.

제14항에 제시된 어형의 예들에서 연결어미 ‘-안’의 이형태인 ‘-양’이 존재하지만 기본 형태소를 ‘-안’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녹암저/암쩌’, ‘녹아수다/앗수다’ 등의 이형태 어미들의 표기를 형태소 밝혀 쓰기를 할 것인가 발음 표기를 할 것인가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어 사전은 ‘-암저’와 ‘-앗수다’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제19, 21항 참조)

2) 잇다, 싯다, 이시다: 기본 형태소의 기준

‘싯다’를 찾으면 ‘잇다(있다)’로 가게 된다. 옆에 제시된 ‘이시다’를 찾으면 ‘잇다’로, 결국 제주방언의 ‘잇다’ 형의 대표 형태소는 ‘잇다’로 결론이 내려지게 됨.

3) 활용형의 변이형의 발음 표기가 없음

의문형 종결어미 ‘-까’에 대응하는 방언형의 경우, 변이형들을 지역별로 제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먹엄저’, ‘먹엄다’의 경우 ‘먹다’와 ‘-엄저, -엄다’로 형태소 분석하여 기본형과 어미로 따로 사전에 등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엄저, -엄다’로의 음성 실현형은 등재 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사전을 찾을 경우 의문이 야기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형태소를 밝혀 쓴 ‘-엄저’ 옆에 [-엄저], ‘-엄다’[-엄따] 등의 발음을 표기해주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14항에 제시된 제주방언의 활용형에 일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대략 5~6가지 유형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존대법의 경우 '-수다'형과 '-네다'형만 존재하는 듯이 보일 수가 있다.

4) 쌍형의 공존형의 경우

제15항의 4는 3음절로 된 쌍형으로 공존하고 있는 용언들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고, 제16항은 2음절과 3음절의 용언이 공존하는 예들에 대한 규정이다.

제15항의 4는 '가르다/갈르다', '나르다/날르다' 등의 ㄹ 받침 어간과 모음어간 용언의 공존형에 대한 활용형의 표기 규정인데 표제어가 마치 표준어인 모음어간 용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골르다'를 찾으면 '고르다'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언형은 '골르다'이다.

제16항의 어미 활용 시 표준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방언형들에 대한 표기 규정이 왜 필요한지?

'거끄다/క్క다'의 경우는 '거끄다'가 방언형인데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야뜨다/야프다'의 경우도 '야프다'는 「제주어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으며 '지프다/지프다?'는 '지프다?'가 '지끄다'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할트다'에 대한 변이형으로 '할르다'도 있으나 이 또한 예에서 채택되지 않아 있다.

5) 형태소 밝혀 쓰기 규정: 형태주의

제17항은 ㅅ 받침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용언의 어간을 밝혀 쓴다는 형태주의 입장이다. 만일 형태음소 입장으로 이 규정을 완화한다면 '그스민(굿+으민)'으로 발음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옆에 형태소 분석을 해서 용언 어간을 밝혀주는 방법도 채택할 만하다.

제19항은 '-앗-/-엇-'에 대응하는 방언형을 '-앗-/-엇-'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어-’에 대한 처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제21항은 종결어미 ‘-저’와 ‘-주’에 대한 표기 규정인데 ‘-다’, ‘-구나’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할 것이다.

6)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음소주의

제20항과 21항은 각각 연결어미 ‘-면’의 이형태인 ‘-믄, -민’과 높임 침사 ‘마썸’의 이형태들은 그대로 적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7) ‘-ㅎ다’가 붙는 용언: 형태주의

제18항은 “-ㅎ다’가 결합된 용언에서는 ‘-ㅎ다’가 줄어지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 대로 적는다.”로 이 조항은 ‘-ㅎ다’가 ‘-허다’ ‘-흐연’이 ‘-헨’ ‘-흐염수다’가 ‘-햐수다’의 준말로 발화되는 이형태를 표기대상에 채택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와 상치 되는 항목이라 하겠다.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1) 파생명사: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제23항, 2에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수눌다> 수눌음, 무끄다> 무꿈, 보끄다> 보꿈

‘무꿈’, ‘보꿈’과 같은 파생명사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제24항의 ‘노ㅍ>노피’, ‘지ㅍ>지피’ ‘야ㅍ>야피’ 등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제주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 조항은 제 1절의 제13항의 이중모음의 처격조사에 보이는 이중모음 형태가 인정된

점과 상치되는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결 론

앞에서 각 조항마다 검토하면서 내린 소결론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하나, 제주어 표기법의 중심은 제주방언의 특수한 발음과 형태들의 곡용 및 활용형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주방언은 한국어의 한 지역 변이형이므로 이를 표기하기 위한 표기 수단도 한글이며 <한글 맞춤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제주방언만의 독특한 어형들의 표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표기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완벽하거나 규제가 심한 표기법을 취할 때 우리는 자칫 소중한 발화 자료를 잃어버릴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제주어 사전은 제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이 방언사전을 사용하여 제주방언을 익히거나 이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쉽게 제주방언을 구사할 수 있도록 발음표기를 표제어 옆에 표기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권한다.

<참고문헌>

- 김영배(1997), 「평안방언 연구」, 태학사.
이기갑 외(1997), 「전남방언 사전」, 전라남도.
이상규 외(2007), 「경북방언 사전」, 태학사.

- 핵심어: 제주어사전, 형태분야, 한글맞춤법, 표기체계, 활용어미, 변이형, 형태소 분석

<Abstracts>

Review the Transcriptions in *Jeju-eo-Sajeon*

Kang Jeong-hui

This review aims to remark on the morphological transcriptions in *Jeju-eo-Sajeon* with the view to evaluate the completeness as regional dialect dictionary.

Jeju Dialect is very different from Standard Korean especially in the field of phonetics, inflectional morphology, i.e. rules of affixation and combination of inflectional endings. According to these dialectal facts we can easily imagine that there are many variants of dialect, therefore the morphological transcriptions and the writing system of Jeju Dialec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tandard Korean. But the writing system of *Jeju-eo-Sajeon* has applied *Hangul-Machumbeop* to the transcriptions of *Jeju-eo* completely.

In *Jeju-eo-Sajeon*, the writing system of morphological transcriptions of *Jeju-eo* are classified by 4 sections as below:

Section 1: Noun Class and Case

Section 2: Verb Stems and Inflectional Endings

Section 3: Words of Affixation(suffixes)

Section 4: Compound and Affixation(prefixes)

I'll remark on section 1 and 2 in this paper very briefly .

In Section 1, So many problems here, i.e. variants of locative case markers have been written without a writing norm. So we can't distinguish which base morphemes are. For examples: There are three

kinds of allomorph such as ' *-deore*, *-gui*, *-dui*'(-더레 -기, -되) which are variants from morphological condition.

In Section 2, there are no phonetic notation in inflectional endings. For examples: there are '*-eomjeo*, *-eomda*'(-엄저, -엄다) but no '*-eomjjeo*, *-eomjitta*'(-엄쨌, -엄따) which are phonetic ones.

As this review has shown that the necessity of consistency of the morphological transcriptions and applicatory writing system in Jeju Dialect should be required.

- Key Words: Jeju-eo-Sajeon, the morphological transcriptions, Hangul-Machumbeop, the writing system, Inflectional Ending, a writing norm, variants, morphologically conditioned